

# 따뜻: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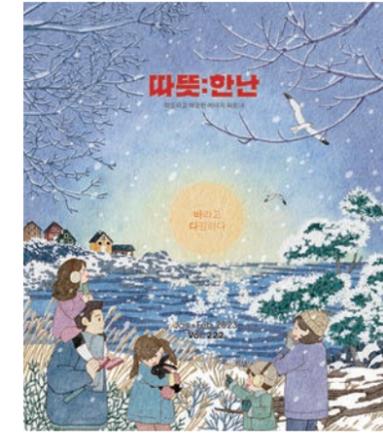
바라고  
다짐하다

Jan+Feb 2023  
Vol. 222

바라누 것, 다짐한 것  
모두 다 이루어주세요~!

계묘년, 힘차게 떠오른 새해를 보며  
마음속으로 했던 다짐들이 있으시죠?  
올 한 해는 꼭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같은 바람, 다짐일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따뜻:한난>도 여러분의 바람과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요~!

# Contents



## COVER STORY

드넓고 푸른 바다. 그 위로 힘차게 떠오른 해.  
나뭇가지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  
새해 그리고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두 이 겨울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 [www.kdhc.co.kr](http://www.kdhc.co.kr)
- [www.youtube.com/c/kdhcmedia](https://www.youtube.com/c/kdhcmedia)
- [blog.naver.com/kdhc2017](https://blog.naver.com/kdhc2017)
- [www.facebook.com/FKDHC](https://www.facebook.com/FKDHC)
- [www.instagram.com/kdhc\\_on](https://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3년 2월 17일(통권222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인 정용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 SECTION 따뜻한, 마음

**04**  
테마 필치기  
바라고,  
다짐하다

## SECTION 뜻깊은, 걸음

**12**  
혁신, 더하기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  
도약하겠습니다”

## SECTION 한번더, 웃음

**20**  
반가운 만남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 SECTION 난방, 요즈음

**38**  
취미 유발자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06**  
테마 에세이  
바라고  
다짐하다

**14**  
효율, 늘리기  
통합운영센터  
그곳이 알고 싶다

**24**  
이런 문화  
‘요즘’  
사람들의  
운동 트렌드

**42**  
여기서 행복  
파주시사  
안전품질부  
안재희 차장 가족

**08**  
생각 보태기  
2023년  
새해 소망을  
말하다

**16**  
안전, 곱하기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28**  
그림의 위로  
황금색을 사랑한  
‘클림트’가 그렸던  
여인의 초상

**46**  
듣는 서점  
나 홀로 읽는  
도덕경

**10**  
특독 양케트  
새해의 시작  
여기서 어때?!

**18**  
투명, 높이기  
청렴인증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난

**30**  
요즘 밥상  
궁중떡볶이

**48**  
함께 시너지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32**  
에코 트래블  
잔잔한 바다, 마음  
따뜻해지는 섬  
통영 연대도

**52**  
한난 뉴스

**36**  
콘텐츠 in 에너지  
메탄가스로 움직이는  
분노와 광기의 도시  
영화 <매드 맥스 3>

**54**  
독자와 함께

**55**  
한난 SNS



04



12



32



38



46

# 바

라봅니다. 끝을 모르고 펼쳐진 저 푸른 바다를요. 바다가 좋은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파랑고, 가늠할 수 없는 드넓음이 좋더라고요.

살면서 마주한 그 어떤 근심, 고민도 다 풀어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바다만이 간직한 영롱한 에메랄드빛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2023년이 되자마자 전국의 바다로 모여들어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비는 것을 보면,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웅장한 일출을 품을 정도로 호연함을 간직한 바다의 모습에,

한 해가 잘 풀렸으면 하는 기대를 거는 거죠. 부디 바다 곁에서 빌었던

여러분의 소망, 다짐, 기대가 헛되지 않았기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다

집합니다. 올해는 꼭 이 다짐들을 해내고 말겠노라고.

다들 것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해가 된지도 벌써 몇 날이 흐른 지금 이 순간이요.

어쩌면 새해 첫날, 푸른 바다를 보며 했던 다짐들이

희미해졌을 시기이기도 해요.

마음먹은 일을 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희미해진 다짐들이 있다면 상기시키며 되뇌고,

덧칠하면 되거든요. 연해진 글씨를 볼펜으로 덮어쓰듯,

빛바랜 그림에 다시 선명한 색을 입히듯.

다시 질게 만들어봅시다.

그렇게 선명해진 다짐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새해 첫날처럼요.

혹시 또 희미해져가거든, 다시 또 선명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 그 다짐 포기하지 말고,

마음껏 바라고 후회 없이 다짐해 봅시다. 🍀

# 바라고, 다짐하다

# 바라고 다짐한다

글 손힘찬 작가

회사에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아침, 저녁으로 대중교통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 저 하늘 위에 뜨는 태양과 별을 보기 전에 휴대전화 속의 가상 공간에서 나를 드러낸다. 다른 사람의 사진, 영상을 보며 오락성으로 소비하거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끔은 반복되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사건이 생기길 바랄 때도 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었다는 것도 잊은 채 말이다.

그럴 땐 하늘을 올려다보자.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로부터 자연의 경이감을 느낄 수 있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나를 위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사소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 건 나의 몫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이나 느껴지는 감정도 모두 나의 것이다.

1인칭 시점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행 중 다행인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나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정말 가난했을 때, 협소한 공간에서 잠갔을 때,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을 때, 바라고 다짐했다.

‘최고의 작가가 되어야지’라며 다이어리에 적어 내렸다. ‘베스트셀러 1위 책을 쓰겠다’, ‘월 0000원을 벌겠다’,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보면 망상 속 다이어리라 생각할 정도로 내 현실과 맞지 않는 목표였다. 사람들이 얘기했다. 현실을 보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난 반대로 물었다.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내 삶이 현실이지 무엇이냐. 꿈을 위해 글을 쓰고,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한 내 삶이 현실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이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떤 목표, 꿈을 세우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보라며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곤 했다. 현실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내가 이루려는 목표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들리기 시작했을까.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곧 현실이고 세워놓은 목표, 이상 역시도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곧 다가올 미래라는 점만 잊지 않으면 누군가가 말했다. 이상이, 현실이 되어있을 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종이에 적는다. 가급적이면 손으로 적는다. 손글씨로 목표를 확인한 순간 뇌리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예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적은 뒤 외워보자. 그 목표 자체를 24시간 동안 생각해버려라. 어느 누가 물어보든, 내가 언제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뇌는 생각한 대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머릿속을 지배하면 된다.

둘째, 반복한다. 적거나,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반복하고 정리해 보자. 이미 나의 뇌의 방향은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행동은 정해져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작가로서 꿈을 세우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뒤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SNS에 글을 연재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

손힘찬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쉬게요> 등의 책을 썼다.

다수의 책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작가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뉴 미디어 콘텐츠 디렉터로도 활동 중이다.

그 결과 7년 만에 업로드된 게시글만 6,000개가 넘어간다. 나의 목표 설정만 확실하다면 이에 맞는 행동, 해야 할 목록은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한다.

셋째, 실행-수정-보완-재실행-DB화-업그레이드 상태로 실행하는 걸 반복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시행착오 속에서 수정사항이 생기기 마련이고, 여기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이런 시행착오는 수정된 계획을 다시 실천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된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목표가 간결하고 확실한 이상, 해야 할 일 역시 간단명료해진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정답을 하나씩 찾아가기 바란다. 🍓

목표가 간결하고 확실한 이상,  
해야 할 일 역시 간단명료해진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정답을 하나씩 찾아가기 바란다.

2023년은 계묘년입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가 뛰어난 동물로 묘사되었는데요. 혹시 올해 어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토끼처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따뜻:한난> 독자 여러분의 새해 소망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응원할게요! 소망하는 일 다 이루어지는 2023년 보내세요~!

글 편집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 2023년 새해 소망을 말하다

##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이유나 대리 건강한 나로 거듭나려고요!



건강관리는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일단 식단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식단 관리를 하면서 운동도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겠죠?! 매해 하는 다짐인 것 같지만,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같이 노력해서 건강하세요~!

## 강남지사 운영2부 정성운 주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내 집 마련은 저의 오래된 바람입니다. 매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은 새해가 된 지금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요.^^;; 올해는 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자가 소유'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 집을 마련해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고 사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집니다. 하하.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 수원사업소 열수송부 이상국 팀장 아빠가 만들어 주는 빵 기대해~!



우리 가족은 모두 빵을 좋아하는데요. 평소 빵을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제가 직접 빵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도 했었어요. 2년 전부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은 좋은 결과가 없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올해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애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자격증 꼭 따서, 맛있는 빵 만들어 줄게~! 사랑한다.♥

## 독자 강창규 님 책이 보약이다



저의 새해 목표는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2~3시간인데요. 그동안에는 버스 안에서 잠자느라 정신없었거든요. 2~3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아 반성하면서, 그 시간에 독서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요즘은 이동도서관도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E-book을 이용한 독서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예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가방에 꼭 책을 넣고 다니려고요. 지식과 교양으로 가득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4월호 생각 보태기 주제 요즘 사랑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3+4월호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랑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사람, 물건, 취미, 운동 등 독자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기다릴게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3월 15일까지

새해의 시작  
여기서  
어때?!

1월 1일.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 보셨나요?  
아니면 TV 속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맞이하셨나요? 사실 새해는 그 자체로  
특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집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이했든, 회사에서 일을 하며 맞이했든,  
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맞이했는지 말이죠.  
바라고 다짐하기 좋은 새해.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공간은  
새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여 그곳이 이불 속일지라도요!

글 편집실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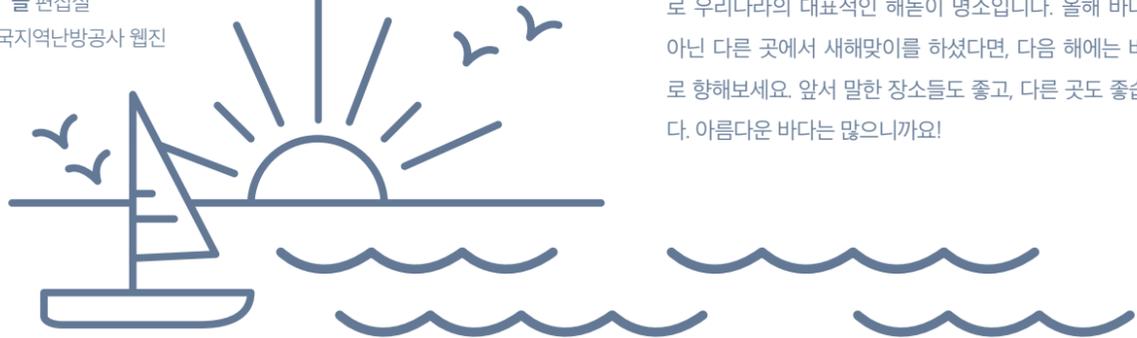


‘새해맞이 어디에서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집’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혹은 나름대로의 파티를  
하면서요. 새해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으니 편안한  
집이 최고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어딘  
가로 새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오롯이 내 공간  
인 집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새해맞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50%  
집

15%  
바다

역시 새해를 맞이하는 장소로 바다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습  
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난> 독자 여러분도 바다로 발걸음을 했던 것 같습  
니다. “정동진에서 여자친구와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부산 기장의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라  
고 답해주신 분도 있네요. 두 장소 모두 일출로 유명하죠. 특  
히 정동진의 일출은 해마다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입니다. 올해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해맞이를 하셨다면, 다음 해에는 바다  
로 향해보세요. 앞서 말한 장소들도 좋고, 다른 곳도 좋습니  
다. 아름다운 바다는 많으니까요!



13%  
산

산은 바다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장소로 자주 손꼽  
히는 곳입니다. 힘들게 등산하며 정상에 올라 맞이해서인지 그 감동  
은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붉은 해는 마치 땀 흘려 여기까지 올라온  
‘나’를 위한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일출을 보러 가는 길에 멋진 바위들을 보며 사진 찍  
느라 바빴다는 사연을 보낸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산이 주는 매  
력인 것 같습니다. 오르다 힘들면 경치를 보면서 쉬어가면 되거든요.  
공기 좋은 것은 말해 무엇 합니까. 한 독자는 이런 답변을 남기기도 했  
습니다. “지난해의 안 좋았던 일을 다 잊고자 일부러 산에 올라 새해  
를 맞이했습니다. 힘들게 오르다 보면 잡념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안 좋았던 일을 잊고 싶다면, 여러분도 산으로  
가보세요. 집 앞 산도 좋습니다. 오르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많을 테  
니까요.

8%  
회사



생각지도 못한 곳이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새해에 회사라니요! 하  
지만 의외로 연말에 몰린 업무 때문에 회사에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 때문에 새해를 회사에서 보냈지만, 다음 해  
에는 꼭 가족들과 바다로 일출 보러 가려고 합니다”라고 사연을 남겨  
준 독자처럼요. 직장인의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직장인 여러분,  
새해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10%  
해외



해외에서 보내는 새해. 생각만 해도 낭만적  
일 것 같은데요. 한 독자는 새해가 되니 해  
외에서 보낸 추억이 생각난다며 사연을 보  
냈습니다. “서른 살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를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프랑스 파리  
로 떠났습니다. 12월 31일, 저녁식사를 맛  
있게 하고 개선문으로 향했습니다. 기대감  
으로 두근두근했어요. 하지만 곧 실망했습  
니다. 골목마다 가득 찬 사람들로 개선문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길거리  
서 인파에 영커 어영부영 새해를 맞이했네  
요. 앞으로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  
께하려고요.” 여러모로 많은 가르침을 준  
사연이었습니다^^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타버스’인  
데요. “올해는 평범하게 집에서 새해를 보  
내서인지, 내년에는 메타버스 속 다양한 사  
람들과 새해를 새롭게 보내고 싶습니다”라  
고 말한 독자가 있었어요. 정말 색다른 발  
상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다양해지  
고 바뀌었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더라고  
요. 참, 또 하나 잊지 못할 답변이 있어 소개  
합니다. 바로 ‘이불 속’인데요. 이불 속에서  
보낸 새해, 누구보다 따뜻하게 새해를 보낸  
다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

4%  
기타  
메타버스,  
이불 속 등



3+4월호 특독 앙케트 주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그 선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  
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3월 15일까지

#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2022년 10월 제9차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다시 도약하는 한남,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혁신, 도전, 상생,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남의 의지가 담겨있다. 제9차 경영전략 수립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한남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주관한 기획처 기획부 담당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글 편집실 사진 정우철 동영상 최의민



왼쪽부터 신수연 대리, 정기중 부장, 허충휘 팀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남의 '제9차 중장기 경영전략'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처 기획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기획부는 현안 업무 조정, 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회 및 ESG 위원회 운영,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선임 등 인사관리, 국회, 산업부 등 대외기관 업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영전략 수립안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비전의 정의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미래상'입니다. 정의에 맞춰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회사의 미래상을 도출해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직급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워크숍을 시행했죠. 직급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공사의 경영 환경, 성과 창출 가능성, 자원배분 전략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어떤 의견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획부 직원들이 합심한 덕분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반대로 경영전략 수립안 발표 후 가장 뿌듯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직원분들이 한남의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의견 반영을 위해 '비전수립 크루'를 구성하고, 공사 미래 성장 동력 및 미래 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경영전략에 반영되었을 때, 노력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 제9차 경영전략 수립안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남의 새로운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한남,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입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 및 산업의 상생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남은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선정된 비전처럼 공사가 빠른 시일 내 다시 집단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재도약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를 대변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9차 경영전략 수립안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할 동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영전략 수립안과 관련해 사보 <따뜻·한남>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한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사의 경영상황을 알리고, 협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전략 실천 Movement'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할 때 현재의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남이 새롭게 수립한 제9차 중장기 경영전략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경영전략 실천 Movement 경영전략의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는 개념



#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통합운영센터 그곳이 알고 싶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한곳에서 통제·분석·관리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열수송관 연계망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컨트롤하는 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통합운영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정적, 경제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전 지사의 시설을 24시간 통제·분석·관리하는 종합상황실입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설비 운영, 전 지사 설비의 실시간 감시 및 통제 등 한난이 생산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안정적 설비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통합운영센터의 주요 활용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경제운전 시스템과 정보제공 시스템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경제운전 시스템은 매일 지역별 열수요와 전력시장 예측 등을 토대로 효율이 가장 높은 설비부터 우선 가동하도록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관리 시스템은 생산설비의 생산량, 판매량 및 공급 현황 등 모든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반영해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 후, 설비 효율 향상과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여. 기. 서. 잠깐!**  
파주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연계 열수송관망을 통해 수도권 설비 운영 효율 극대화 및 설비 고장 등 비상시 타 지사 연계 공급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설비 운영 효율 향상, 연계망 활용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열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센터는 앞으로 혁신·효율·안전 중심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운영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밖에 통합운영센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래 표를 함께 볼까요?

<b>경제운전 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적 생산 및 공급계획 수립</li> <li>열수요 및 전력시장 정보 관리</li> <li>생산시설 가동 우선순위 선정</li> <li>연계지사 간 연계열량 배분</li> </ul>	
<b>실시간 관리 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 지사 열원 시설 상태 관리</li> <li>실시간 운영 데이터 취득 및 관리</li> <li>전사적 통합관제 정보 관리</li> </ul>	
<b>전력거래 시스템</b>	<b>정보제공 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거래 입찰</li> <li>전력거래 데이터 취득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관리 통합정보 제공</li> <li>경제운전 정보 및 실시간 시설운영 정보 제공</li> </ul>



**통합운영센터 운영 효과는 무엇인가요?**  
실시간 경제운전을 통해 2022년 기준 연간 약 3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죠! 🌟

**여. 기. 서. 잠깐!**  
한난은 빅데이터 기반 열수급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전국 지사의 열공급 및 안전관련 설비 운영 정보인 열생산설비의 정지 및 고장, 축열조 수위 저하, 열수송관 압력변화 등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분석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품격 지역난방 공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비 이용 효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글 편집실



### 열수송관의 지속적 구축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열수송관을 통해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다.

지역난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열수송관의 지속적 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국에 설치한 열수송관 길이는 4,842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파주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연계 열수송관망을 구축 완료했으며, 장거리 열수송에 효율적인 25Bar System이 적용된 판교~강남 연계, 용인~동탄2 연계 열수송관망 구축 완료 및 동탄~고덕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연계를 통해 설비 이용 효율 제고는 물론, 열공급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민 안전관리 강화

공사는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실시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열수송관 안전 상태를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보수·교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드론 열화상, IoT 온도 센서진단, 반사파시차측정진단, 상관식청음 등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통합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외부 안전 위협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발전소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수도권 연계 열수송관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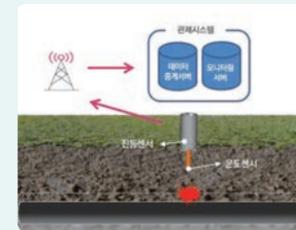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시설 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 드론 열화상점검



한난은 지난 2020년 열수송시설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드론 열화상점검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분당, 고양, 용인 등 5개 지역, 446km의 관로를 점검한 결과, 기존 2개소와 신규 1개소에서 지열이 발견됐다. 지표온도 측정을 통한 드론 실증사업은 광범위한 지역의 시설 점검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어 안정성이 뛰어나다.

### IoT 온도 센서



IoT 온도 센서는 매설된 열수송관에 근접 설치하여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기술로, 지중온도 및 충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난은 열수송관 이상징후 조기대응 및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강남 지역에 IoT 온도 센서를 최초로 설치해 시범 운영했으며, 2020년 중앙, 고양, 분당, 용인 지역으로 확대했다.

### 반사파시차측정(D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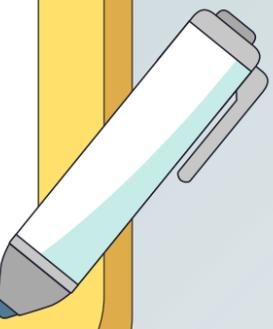


반사파시차측정은 반사파의 시차측정으로 열수송관 보온재 결함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로, 도로구간 적용이 용이하다는 게 특징이다. 2021년 9월 고양과 청주 지역에 최초로 시범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2024년까지 열수송관 적용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상관식청음



한난은 IoT 기술을 활용한 열수송관 누수탐지(청음) 기술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이는 2개 이상 지점의 밸브에 누수음 수집센서를 설치하고 상관식 누수음 감지를 통해 누수여부 및 위치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교통소음 등의 잡음 구분이 가능하고, 인력기반 청음 진단에 비해 정확하다는 게 장점이다. 📌



# 청렴인증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날!

‘청렴한 조직’은 혼자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원 모두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반부패’를 목표로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남은 2021년부터 청렴TF를 신설해 운영하며 조직의 청렴에 심혈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인증제에 대해 소개한다.

글 편집실

## #청렴인증

한남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해 세부 단위 과제를 제시·평가해 우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임직원이 반부패·청렴 시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관련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지표의 시책 효과성 평가가 변화했다. 시책 효과성 평가를 청렴 노력도에 반영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정성평가를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남도 청렴인증제 지표를 개선했다.

## #달라진 점



## #간부직고위직 중심

## 청렴활동

월간클리닉은 간부직원의 청렴활동 솔선수범을 위해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청렴문화 공유의 장이다. 반부패·청렴 관련 시책 공유 및 관련 부패 발생 사전 진단, 부서원들의 고충 청취 등 부서별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부서 내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관련 사례를 사전에 진단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월 1회 시행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 #내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확대

기존 외부인 대상 업무 만족도에서 외부인 및 내부 직원 대상 청렴도를 추가 반영했다. 내외부 청렴도 측정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특히 내부 직원 청렴도 비중에 높여 내부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 #인센티브 강화로

# 전 직원 청렴활동 참여 유도



청렴인증제 결과 상위 3개 본·지사에 청렴 인증서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서별 포상금 지급 기준과 개인 포상 역시 확대했다. 본·지사 최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도 확대했다.

## #가점지표 확대

# 과제 성실수행 독려

본·지사 특성에 맞는 비계량 가점 지표를 신설했다. 특히 반부패 청렴 교육 이수율 등 자동 투입지표 가중치를 축소하고, 법인카드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했다. 부패행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감점조치로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조심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비머네스크가 필요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수지적자, 소비침체, 가계부채 급증, 주가하락...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지 않는 험난한 경제의 연속. 경제전망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착잡함이 밀려온다. '경제는 무겁고, 마음은 허탈하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의 발걸음도, 반찬거리를 구하는 주부의 마음도, 내 집을 구하는 세입자의 한숨도, 사업기회를 구하는 기업의 고민도 모두 무겁기만 하다'는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의 플로로그가 이런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건네는 것 같다. 계속 낙담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이고'라는 한숨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며.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영상 김지혜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고 계신데요. 2023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2023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좋은 뉴스가 없었죠.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괴롭혔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보다 2023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둔화 국면을 지나고, 2023년에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기침체는 단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L자형 침체에 가깝게 경기침체 초입에 진입한다는 관점에서 2023년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머네스크 올림픽에서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을 지닌 비만의 성을 탄 말로, 운동선수가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는 뜻이다.

Great Recession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프롤로그가 인상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성하셨나요?

프롤로그를 쓸 때는 항상 전체 결론까지 마무리해놓고, 감동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프롤로그는 결론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비행기에서 썼거든요. 그때 프롤로그를 쓰면서 정말 평평 울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거시경제 국면에서 소위 한분 한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비를 맞는 거거든요. 비가 올 줄 알면 우산을 쓰고 나가면 되잖아요. 비가 오는지 여부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 상황에 걸맞은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괜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2022~23년 그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면에 걸맞게 어떤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프롤로그를 써봤습니다.

2023년을 '내핍의 시대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2023년 경제는 '내핍점(Point of Austerity)'에 해당합니다. 내핍은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딜을 뜻하는데요. 공핍과도 유사한 표현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핍은 몹시 가난한 상황을 말하고, 내핍은 가난한 상황을 인내하는 모습을 의미하죠. 2023년 경제가 녹록지 않을 것이고, 경제 주체는 그 어려운 경제를 인내해야 합니다.

<따뜻:한난> 1+2월호 주제가 '바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핍의 시대에 소비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다짐해야 할까요?

지독하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해이니만큼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변화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에 투



2023년은 리세션의 시대다.  
“산 넘으면 또 산이고, 겨울 지나면 또 겨울이다. 땅 파면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땅을 파도 여전히 땅속이다.”  
2021년 이탈점과 2022년 회귀점을 지나 ‘참고 견디며’ 버텨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자해야 합니다. 경제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제의 일부이며, 주체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 발 기준금리 인상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항상 나의 내일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은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평생 가장 높은 금리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높아진 금리에 대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빛을 최대한 갠아가자', '갠고 있는 빛의 규모를 줄여나가자'입니다. 빛져서 원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원가를 하지 말고 빛을 갠 게 더 유리해지는 2023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빛 갠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소득이나 잉여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식의 형태, 부동산 혹은 저축의 형태, 채권의 형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갠고 있을지의 문제인데 2023년은 상대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갠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에는 결과적으로 저축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전망서를 낼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에도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꽃찬 수익이리복,  
큰 돈 2리서고,  
그 돈 리서선  
2023년 리서 리서리!  
김광석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채널로도 많은 독자와 만나고 계신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는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2021년 1월에 개설했으니까, 운영한 지 2년 됐네요. 경제전망, 경제동향, 경제트렌드, 산업동향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분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매력이 빠르게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경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많은 분이 좋은 반응을 보내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구독자 10만 명이 달성되면 수입금을 난치병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고 싶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현재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신입사원 월급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시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정산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10만 명 달성되는 날 전액 일괄 정산 받아서 기부하는 게 제 유튜브 10만 명 달성 공약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경제 정보도 드리고,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따뜻:한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머네스크(Beamonesqu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약조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밥 비먼 선수가 계속기의 측정 한계를 넘어선 착지를 하며,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그 후 23년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당시 비먼 선수는 결선 점프를 앞두고 동료 랄프 보스턴이 건넨 말을 듣고 대단한 기록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지금 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네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이 말처럼 혹독한 경제 상황이지만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나는 어떤 대응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2023년 비머네스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

## 새해 다짐 0순위 '요즘' 사람들의 운동 트렌드

운동은 새해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중 하나다. 최근 건강관리를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여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엄격한 절제 속에 운동을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진 것.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운동 트렌드를 짚어본다.

글 김주희

### 이왕이면 즐겁게 경험과 재미 추구, 헬시 플레저

최근 몇 년 새, 지속된 팬데믹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대에 걸쳐 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회 30분 이상,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20대 53.3%, 30대 48.4%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다. 과거에는 쾌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고통스럽게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즐겁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지속가능한 운동'을 추구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새로운 건강 트렌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경험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 놀이 혹은 휴식 운동의 새로운 정의

놀이처럼 즐기는 운동이 헬시 플레저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전에는 조깅, 헬스가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등산, 골프, 테니스 등 2030 세대에게 접근성이 낮았던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특히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중장년층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힙한 스포츠로 떠오르면서 골프에 입문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 '골프+어린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골린이'로 불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테린이(테니스+어린이)', '산린이(등산+어린이)'도 마찬가지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나 경험 앞에 주저하지 않는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휴식과 운동을 분리하지 않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운동을 신체 에너지를 한껏 쏟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힐링의 방식으로 여기는 것. 휴가에서조차 운동에 매진하는 '스포츠키이션'이 그 예다. 스포츠키이션은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행지와 숙소 등을 결정하는 문화다. 바닷가에서 서핑을 배우거나, 등산을 목적으로 행선지를 선정하거나, 테니스나 필라테스 클래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호텔에 머무는 식이다.



### 비주얼도 놓칠 수 없다 스타일 입은 운동법

패션도 운동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퇴근 후 헬스장으로 바로 향하는 MZ세대 직장인들은 애슬레저 웨어를 즐겨 입는다.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모호한 복장으로 일상부터 취미, 운동까지 아우르는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애슬레저 룩이나 일상 속에서 등산 및 캠핑용 아웃도어 의류를 즐기는 고프코어 룩이 인기를 얻고 있다. 투박한 트레이닝복 혹은 무채색 컬러로 획일화된 운동복 대신 세련되고 감각적인 룩으로 개성을 표출한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MZ세대는 스타일까지 챙기며 운동을 즐기는 중이다. 이처럼 MZ세대들은 열심히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증하며 셀프 동기부여를 하는 동시에 소소한 성취감을 만끽하고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이끌고 나아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도 해주는 과정을 즐긴다. 이들에게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을 넘어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실현하며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리한다.



### #오운완 #바프 '건강한 나'를 인증하는 시대

SNS에서 '#오운완' 태그를 덧붙인 피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오운완이란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운동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생긴 단어다. '오늘 하루 운동'이란 뜻의 #오하운도 있다. 운동으로 근육질 몸을 만드는 '득근'이라는 단어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밖에도 '헬스타그램', '런스타그램', '헬린이' 등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MZ세대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해시태그들이 생기고 있다. 이들에게 운동은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

최근 많은 젊은층이 버킷리스트로 손꼽는 바디 프로필도 그중 하나다.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근육질의 몸을 만들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뜻한다.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진에 '#바프'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를 기록하고 공유한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건강한 몸을 사진으로 남기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타인의 바디 프로파일은 운동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오늘 같이 뭘까요?"**  
**'크루'로 함께 즐긴다**

운동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앱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운동 경험과 기록을 공유하거나 챌린지 형태로 운동을 지속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크루(Crew)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러닝, 등산, 골프 등을 즐긴다. 이를테면, 러닝 크루의 경우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임을 공지하고,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모여 달린 후 헤어지는 식이다. 이전엔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 활동이 많았지만, 가입비와 참석 의무 등의 규정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터. 크루는 친목 활동은 최소화하고 단기간 정해진 목표의 활동만 하므로 취향껏 즐길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산악회 대신 등산 크루, 자전거 동호회 대신 라이딩 크루로 참여하는 것이다.

**문화 체험과 환경보호까지**  
**변주하고, 의미 더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는 단순히 '운동'만 하지 않는다. 패턴을 달리해 새로움을 부여한다. 러닝의 경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달리는 나이트 러닝, 도심의 핫플레이스를 코스로 하는 핫플 러닝과 스트리트 러닝을 즐기는 방식이다. 서울의 문화재를 함께 둘러보는 인문학 트레킹도 같은 맥락이다. 제로웨이스트 운동법도 각광받고 있다. 러닝이나 조깅 시 작은 가방을 지참하고 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플로깅이 그 예다.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것. 이처럼 감성과 문화를 부여하며 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는 중이다.



Tip. 동기부여와 재미 Up!

**운동 앱&소모임**



**런데이**

달린 시간과 페이스, 거리를 자동으로 기록해 준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맞춤형 플랜을 제공한다. 운동 후 기록을 SNS에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기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버추얼 레이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챌린저스**

일상 속 작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앱. 하루 1만 보 걷기, 모닝 스트레칭 등 운동 카테고리 챌린지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예치금을 걸어두는 운영 방식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동기 유발을 돕고, 미션 달성 시 예치금을 돌려주고 보상금도 준다.



**하우핏**

필라테스, 타바타, 헬스, 스트레칭, 다이어트 댄스 등 전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운동 콘텐츠에 AI 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해 혼자서도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트레이닝 앱이다. 다양한 사운드와 애니메이션 효과 등 흥미 요소를 더한 것도 특징.



**스트라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전거 라이딩 기록 앱. 스트라바에 기록을 남기면 좋아요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유저들이 뛰었던 기록이나 코스를 보고 댓글도 남길 수 있다. 자전거 외 달리기, 등산,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용자들을 모아 서로의 운동 기록을 보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크루 고스트**

오픈 러닝 크루 단체로 주로 서울 시내를 달린다. 달리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경험함으로써 서울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러너에게 선사한다. 크루 고스트 모바일 앱을 내려받고, 메인 페이지 스케줄에서 세션을 확인하고 원하는 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스트레인지 서울**

인스타그램 @strangerseoul를 운영하며 등산 크루를 모집한다. 운영진이 산행 계획을 공지하면 DM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행 시 텀블러, 손수건 등을 권장하며 지속가능한 클린 산행을 추구한다. 🍌

# 황금색을 사랑한 ‘클림트’가 그렸던 여인의 초상

1900년대 초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살았던 여성이었다면, 한 번쯤 반드시 초상화를 부탁해 보고 싶은 화가가 있다.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다. 클림트는 1900년대에 여성의 초상화를 가장 아름답게 그렸던 화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초상화에 세기의 문에서 있는 여인들의 고혹한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클림트가 그린 여성의 초상화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에도 변천사가 있었다. 클림트가 그린 시기별 대표 초상화를 만나보고 클림트의 초상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초상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글 이소영



구스타프 클림트, 소녀 크립스, 1898, 캔버스에 유채, 145x145cm

## 미래를 내다본 화가

클림트는 1898년 처음으로 소녀 크립스를 그린다. 소녀 크립스는 제철업과 금융업을 하는 집안의 여성이었던지라 남편인 안토니오와 함께 빈에서 아트 컬렉터로서도 활동했고, 건축가 요셉 호프만에게 자신의 집을 꾸며달라고 부탁하는 등 예술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림 속 그녀가 입은 의상 역시 빈 공방에서 만든 옷이다. 이 시기에 클림트는 소녀 크립스를 표현할 때 많은 색을 쓰기보다는 단아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그녀가 들고 있는 붉은 책에만 포인트를 두었다. 신기한 것은 이 작품의 형태가 지금의 인스타그램 사이즈처럼 정사각형이라는 것이다. 클림트는 미래를 내다본 듯하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SNS로 올리기 위해 1:1비율인 정사각형 형태로 찍고 있으니 말이다.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대표.  
 <그림은 위로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 에밀리 플뢰게를 그리다

이 작품은 평생 동안 클림트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준 친구였던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이다(사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반려자로 지냈다). 플뢰게는 당시 비엔나에서 파올리네와 헬레네라는 자매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드레스가 아닌 몸을 감싸는 양탄자 같은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디자인했고, 드레스의 문양 역시 당대에는 새로웠던 넝쿨 문양과 추상적인 도형으로 가득하며 인물과 의상과 배경은 하나의 풍경처럼 합일을 이룬다. 당시 클림트의 초상화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역시 의상을 표현해 내는 장식성도 한몫했다. 클림트는 플뢰게와 함께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할 정도로 회화 이외에 의상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아터제 호수에서 함께 휴가를 보냈고 4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을 정도로 내밀한 사이였다. 그래서일까? 화면 속 에밀리 플뢰게는 마치 너무나도 편안한 눈빛으로 화가인 클림트를 응시하고 있다. 마치 자신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쳐다보는 듯이 말이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밀리 플뢰게, 1902, 캔버스에 유채, 178x80cm

## 금빛 화가,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아델레 플로호 바우어의 초상, 1907, 캔버스에 유채와 금, 140x140cm

‘황금색을 사랑한 화가’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클림트를 대표하는 금빛이 가득한 초상화다. 실제 클림트는 금세공사 부모님을 둔 덕에 금빛을 표현해 내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클림트가 그린 초상화 중 가장 많은 양의 금빛이 사용되었다. 그림 속 주인공은 성공한 사업가 페르디난트 플로호 바우어의 아내로 부부는 모두 유대인이었다. 문화 예술을 사랑했던 부부의 집에는 클림트 이외에도 브람스, 말러 등 빈의 주요 문호계 인사들이 방문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고 불렀다. 아델레의 몸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방이 온통 황금빛에 파묻혀 무언가 골몰히 사유하는 여신처럼 보인다. 종전 직후 페르디난트는 세상을 떠나며 그림의 소유권을 조카들에게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나치는 이 부부가 소장했던 그림들을 전부 몰수해갔기에 다시 오스트리아 정부로 그림이 돌아왔다. 조카 중 한 명인 알트만은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그림을 되찾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로도 세상에 알려졌다.

생전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나 자화상을 남기지 않던 클림트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자신의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가 남긴 초상화 속 여인들의 눈동자에는 그녀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클림트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의 초상화는 여전히 우리가 세기말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깊고 화려한 통로다. 🍷

가래떡의  
색다른 변신

# 궁중떡볶이



희고 긴 가래떡에는 무병장수와 재물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지난해 나쁜 일은 씻어 버리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맑은 국물에 가래떡을 넣은 떡국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새해, 떡국이라는 이 오래된 공식이 조금 지루한 사람들을 위해  
색다른 요리를 제안한다. 바로 궁중떡볶이!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푸드 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가래떡 300g, 소고기(불고기용) 60g,  
당근 1/4개, 양파 1/2개, 청고추 2개,  
파프리카(다양한 컬러) 1/4개씩  
**양념** 간장 2T, 설탕 1/2T, 올리고당 1/2T,  
물 2T, 다진 마늘 1t, 참기름 1t, 깨

### 레시피

- ①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 ② 떡은 물에 담가 불려준다.
- ③ 당근, 양파, 청고추, 파프리카는 채 썰어 준다.
- ④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 양념장 재료를 섞어 버무린다.
- 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해둔 소고기를 먼저 볶고, 불려둔 떡과 양념장을 넣고 볶는다.
- ⑥ 5의 팬에 썰어 준비해둔 야채를 넣고 함께 볶아 완성한다.

### Cooking tip

양념 불고기 요리하면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호에 따라 표고버섯을 추가하면 풍미 있는 궁중떡볶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 잔잔한 바다, 마음 따뜻해지는 섬 \_\_\_\_\_ 통영 연대도



통영은 바다로 열려 있다. 44개 유인도와 526개 무인도를 품었다.

그중 여행 떠나기 좋은 섬이 연대도다. 연대도는 육지에서 가깝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만든 '연대도 자갯길'이 나 있어 걷기도 좋다.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며 오순도순 소박하게 사는 주민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글 사진 진우석 여행작가



## 만지도에서 출렁다리 건너 연대도로

연대도는 달아항에서 배가 다니지만, 연명항에서 만지도로 들어가는 게 좋다. 배편이 많아 편리하고, 만지도와 연대도가 출렁다리로 이어진다. 출렁다리 앞에서 바라보는 연대도 풍광이 일품이고,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가는 맛이 일품이다.

연명항에서 작은 여객선을 탄다.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무 미닫이문을 열어야 한다. 꼭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실내는 아담하다. 조타실이 따로 없기에 키를 잡은 선장님의 뒤탈과 창밖의 바다를 번갈아 본다. 만지도까지 불과 15분. 시나브로 출렁다리가 보이면 다 왔다는 뜻이다.

만지항에서 출렁다리 이정표를 따르면, 해변의 데크길이 이어진다. 풍란이 사는 절벽 아래로 호젓하게 이어진 데크길이 끝나면, 두둥~ 빨간색의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길이 98m, 폭 2m의 현수교다. 출렁다리 왼쪽으로 왼뿔처럼 생긴 연대봉 품에 꼭 파묻힌 마을의 모습이 정겹다. 연대봉 꼭대기 위로 큰 새들이 빙빙 날고 있다. 나중에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라고 한다. 아마도 먹이를 찾아왔을 텐데, 연대도에서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다. 인간이 모르는 섬의 풍요로움을 독수리는 알겠지.

출렁다리 위에 서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짙은 에메랄드빛으로 빛난다. 연대도 마을 앞으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가 반짝이고, 뒤로 220m 높이의 연대봉이 든든하게 품어 준다.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연대봉 꼭대기에 봉화와 연기를 피우던 연대를 설치했다. 연대도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연대도의 봉화와 연기는 내륙의 연대를 거쳐 신속하게 통제영에 보고됐다.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보인다. 경로당 이름이

1 통영은 바다로 열려 있다. 연대도는 여러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통영 특유의 잔잔하면서 서정적인 풍경을 완성한다.

2 연대도의 자랑인 몽돌해변.



‘구들’이다.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등을 지지는 어른들이 떠오른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을 따른다. 대문 옆의 문패가 재미있다. ‘점빵집으로 불렸어요, 김재기 할머니댁’, ‘연대도 유일한 담배집’, ‘산양 읍내에서 가장 낚시를 잘하는 어부네 집’ 등. 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안녕하세요. 마을이 예쁘네요.” 골목길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말을 붙여본다. “예쁘고 편안한 섬이에요. 구경 잘하고 가세요”라며 다정한 말이 건너온다. 골목 끝에 제법 널찍한 몽돌 해변이 숨어 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해변 오른쪽으로 우뚝한 기암들이 버티고 있다. 기암은 풍광도 좋지만, 마을에 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소중한 존재다.

- 3 출렁다리 앞에서 본 연대도 연대봉 품에 자리한 마을이 보인다. 하늘에는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들이 떠 있다.
- 4 아기자기한 마을 골목길. 골목 끝에 바다가 보인다.
- 5 연대도 지갯길.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 맛이 좋다.
- 6 몽돌해변 옆 두 개의 기암 사이로 해가 진다.



### 마을 골목길과 지갯길 걷는 재미

몽돌해변에서 골목길을 따라 연대도 지갯길을 걷는다. 나무하러 지게 지고 다니던 길이라 해서 ‘지갯길’이라 부른다. 지갯길은 산허리를 한 바퀴 도는데, 거리는 2.3km로 1시간 30분쯤 걸린다. 초입에 아담한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모아 마을에 전기를 공급한다. 크고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들도 많다. 덕분에 전기가 귀한 섬이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

그윽한 대숲을 지나면 만나는 갈림길에서 길 찾기에 주의해야 한다. 데크를 따라 이어진 계단길은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다. 정상은 연대 흔적이 남아 있지만, 잡목이 뒤덮여 조망이 열리지 않는다. 갈림길에서 오른쪽 산허리를 도는 길이 지갯길이다. 길은 온순하다. 울창한 대숲, 전망대 등이 번갈아 나온다. 지갯길은 곡선의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구불구불 따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 걷는 게 상쾌하고 군데군데 나타나는 전망대는 눈을 시원하게 한다.

북바위전망대에서 배낭을 내려놓고 쉰다. 안내판에 나온 연화도, 우도, 옥지도, 두미도 등을 찾아본다.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옥지도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작은 고개를 넘으면 조망이 시원하게 열린다. 손을 뻗으면 달을 듯한 학림도 뒤로 통영의 노을 명소인 달아전망대가 보이고, 케이블카가 다니는 미륵산이 우뚝 서 있다. 선물처럼 나타난 마지막 조망을 감상하고 슬슬 내려오면 에코체험센터가 나온다.

이곳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숙소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광과 지열만을 이용해 냉난방을 해결했다. 숙소, 캠핑장, 카라반 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몽돌해변에서 노을을 감상한다. 두 개의 기암 사이로 노을이 졌다. “배가 다 떠났는데요.” 산책하던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주민들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네, 자고 가려고요.” 대답하고 숙소에 들었다. 창문으로 마을과 바다가 잘 보였다. 관광객이 사라진 연대도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달빛 부서지는 바다는 파도가 거의 없다. 어떻게 섬의 바다가 이렇게 잔잔할 수 있을까. 연대도 마을은 지형적으로 천혜의 자리를 꿰찼다. 동쪽으로 연대봉이 버티고, 남쪽으로는 기암들이 파도를 막아준다. 북쪽으로는 학림도, 저도, 송도 등이 떠 있다. 그래서 마을 앞 바다는 호수 같다. 파도의 영향이 없어 전복 양식장으로 제격이다. 다음 날 일찍 숙소를 나섰다. 출렁다리를 건너자 섬 뒤로 해가 떠오른다. 섬이 붉은 후광을 두르고 빛난다. 시나브로 빛이 쏟아지는 바다는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인다. 연대도의 밝고 따뜻한 함을 품고 섬을 떠난다. 🍷



### 연대도 여행 가이드

마을 구경, 지갯길 걷기, 연대봉 정상 다녀오기 등 여러 형태로 섬을 즐길 수 있다. 아기자기한 마을과 호수처럼 잔잔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평화를 선물한다.



**교통**  
연명항에서 만지도행 배를 탄다. 연명항 첫 배는 오전 8시 30분, 10시부터 16시까지 매시 정각에 있다. 여름철에 운행이 늘어난다. 만지항에서 걸어서 출렁다리를 건너 연대도까지 10분쯤 걸린다.  
문의 055-643-3433



**숙소**  
인원이 많으면 에코체험센터(055-646-2582)가 좋다. 가족이나 연인은 펜션이나 민박을 이용한다. 달맞이펜션(010-9388-5932)은 바다 조망이 좋다.



**맛집**  
싱싱한 횡감과 연대도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전복을 이용한 전복해물회 등을 맛볼 수 있다. 에코파크횡집(010-3596-4848), 외갓집밥상(010-4789-0524)

영화 <매드 맥스 3>

# 메탄가스로 움직이는 분노와 광기의 도시

만약 대재앙으로 인해 문명이 몰락한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핵전쟁 이후의 디스토피아 (Dystopia-유토피아와 대비되는 어두운 미래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 영화 <매드 맥스 3>의 도시 '바타 타운'은 돼지의 배설물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글 강진우 사진 <매드 맥스3> 스틸 컷

## 황폐한 대지에서 펼쳐지는 추격 액션 활극

전 세계적 핵전쟁 이후, 지구는 폐허가 됐고 인류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흙먼지와 모래 폭풍만이 휘날리는 대지 위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 나간다. 주인공 매드 맥스(멜 깁슨 분)의 일상도 다르지 않았다. 경비행기를 탄 부자(父子) 강도에게 그나마 갖고 있던 마차와 짐들을 뺏기기 전까지는.

<매드 맥스> 시리즈 1, 2편에 이어 3편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매드 맥스는 이름 그대로 미칠 듯한 분노를 품은 채 강도의 뒤를 쫓는다. 그러던 중 그나마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 '바타 타운'을 만나게 되고, 이 도시를 지배하는 여왕 앤티 엔티티(티나 터너 분)로부터 짐과 마차를 찾아줄 테니 도시의 지하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인 블라스터(폴 라슨 분)를 죽이라는 제안을 받는다. 바타 타운은 돼지의 배설물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데, 메탄가스 발전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물 마스터(안젤로 로시도 분)가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블라스터를 등에 업고

지상의 여왕 앤티를 업신여기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앤티는 도시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스터를 살리되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매드 맥스에게 블라스터를 죽이라고 사주한 것. 매드 맥스는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결투장 선더돔에서 블라스터와 일전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한다. 부하들을 동원해 쓰러진 블라스터를 죽인 앤티는 도시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매드 맥스를 죽음의 사막으로 추방하는데, 어느 주인공이 그렇듯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를 한 부족이 구해준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원들의 도움으로 몸을 회복한 매드 맥스는 부족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찾겠다는 이들과 함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바타 타운을 다시 찾게 되고, 돼지우리에 살며 천대받던 마스터를 구한 뒤 메탄가스 발전기의 일부가 된 기차를 탈취해 도시를 벗어난다. 발전기와 마스터를 모두 잃은 앤티 무리는 도시의 재건을 위해 필사적으로 매드 맥스 일행을 뒤쫓지만, 온몸을 내던진 매드 맥스의 희생으로 끝내 도망친 뒤 폐허가 된 도시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사막에 홀로 남겨진 매드 맥스는 지난 두 편의 시리즈에서 그랬듯, 황폐해진 지구를 정처 없이 오가는 외로운 떠돌이 신세로 회귀한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분노를 마음속에 꼭꼭 억누른 채.

## 돼지 배설물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매드 맥스 3>는 현대 문명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초라하지만 영화 내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화려한 도시 '바타 타운'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석유가 바닥을 드러낸 데다가 그나마 남아 있는 석유를 시추할 장비조차 철저히 파괴된 핵전쟁 이후의 암울한 세계를 그리고 있기에 기계 문명을 지탱할 에너지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 <매드 맥스> 시리즈의 1, 2편에서 메가폰을 잡았던 조지 밀러 감독은 자신의 친구이자 이 시리즈의 프로듀서인 바이론 케네디가 3편의 촬영지를 물색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크게 낙담했으며, 그 여파로 <매드 맥스 3>



에서는 각본과 액션 장면만 담당했다. 이런 와중에도 각본에는 배경 도시를 움직일 에너지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남겼으니, 바로 돼지 배설물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해낸다는 설정이었다.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이상 강한 온실효과를 일으켜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메탄가스는 사실 소의 방귀와 트림을 통해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땅에서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황폐해진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초식동물인 소를 메탄가스 생성원으로 설정할 수는 없었으며, 대신 잡식성인 돼지를 메탄가스 발전기가 있는 지하 세계에 등장시켰다.

실제로 메탄가스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인간의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걸러 낸 메탄가스로 움직이는 바이오 버스를 운행 중이며,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에서 메탄가스를 분리한 뒤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발전소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드 맥스 3>의 에너지 관련 설정이 100% 실현 불가능한 허구는 아닌 셈이다. ●

판교지사  
운영부  
김나래 대리

분당사업소  
운영부  
김은지 과장



## 함께하는 매 순간이 꽃과 같기를

살면서 생각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취미까지 맞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일상이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마치 하얀 백설기 위에 만개한 양금플라워처럼 말이다.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취미까지 오랜 단짝처럼 잘 맞는 김은지 과장과  
김나래 대리가 양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에 함께했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 도전! 양금플라워 떡케이크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멀리서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다. 이내 공방 문을 열고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이들. 분당사업소 운영부 김은지 과장과 판교지사 운영부 김나래 대리다.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인사를 건넨 두 사람은 요깃거리로 준비된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남지사에서도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평소 여행도 함께 가고, 취미도 공유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한다. 평소 새롭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함께하는 도전의 기쁨을 만끽하는 중이다.



“예전에 사보 <따뜻·한난> 원데이 클래스 체험하기에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 취소가 되었지만요. 기회가 다시 온다면 꼭 신청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겼네요.” 양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자 신청 게시가 뜨자마자 김나래 대리가 김은지 과장에게 “이거 할까?”라고 제안했는데, 김은지 과장이 흔쾌히 “그래, 나도 이거 하고 싶어”라며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체험이 성사되었단다. “나래도 저도 취미가 여행이에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스 여행도 함께 했었고, 캠핑도 자주 다니자고 약속했거든요. 실제로 몇 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활동적인 취미만 함께 했는데 이렇게 앉아 양금플라워 떡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새로운 것 같았어요.”

### 양금 플로리스트로 거듭나기란

첫 단계는 색색의 양금으로 꽃을 만드는 것이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두 팔을 걷어붙인 두 사람. “카네이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꽃이에요. 메인 색을 정해서 같은 계열로 만들어 주면 예쁘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김나래 대리는 하늘색, 김은지 과장은 핑크색 카네이션을 만들기로 했다.



고민과 정성이 듬뿍 담겨서일까. 어느새 백설기 위는 하늘색, 핑크색 꽃으로 가득 채워졌다. 마지막 포인트 장식까지 끝나자 케이크가 완성됐다. “와 진짜 예쁘다.” 서로의 케이크를 번갈아 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는 두 사람. “만든 케이크는 소중한 부원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요. 엄마 생신 때 또 만들어와야겠어요.” 김나래 대리가 케이크를 들고 또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말하자 김은지 과장도 거들었다.

“저도 이걸 친구들과 나눠먹고, 다음에는 결혼을 앞둔 동생들 위해 만들어야겠어요. 그때는 더 예쁘겠죠?”

일로 만난 사이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로 한층 더 많은 추억을 나누는 사이로 거듭났다. 올해 버킷리스트인 크로아티아 캠핑도 함께하며 나날이 추억이 쌓이는 사이가 되기를, 지금처럼 회사에서는 서로 격려하며, 두 사람의 2023년은 백설기 위에 핀 꽃들처럼 화사한 날들이기를 응원한다. 🌸

김나래 대리는 처음 걱정과 다르게 거침없이 꽃을 만들어 나갔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빨리빨리 만들어지네요. 선생님, 저 나름 소질 있지 않나요?” 김나래 대리가 뿌듯해하며 꽃 한 송이를 강사에게 자랑하자 김은지 과장이 놀라며 말했다. “너 왜 이렇게 잘해? 나도 부지런히 해야겠다.” 김나래 대리의 속도에 탄력받은 김은지 과장의 손이 바빠졌다.

집중하는 두 사람을 보자 강사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에 신이 난 두 사람은 더욱 몰입했다. “이거 크기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다”, “색깔 예쁘는데 우리 포인트로 꽃 하나씩 바꿀까?”, “그래 좋아!” 칭찬한 스푼에, 재미 두 스푼을 더하는 사이 두 사람의 꽃은 더욱 풍성해져 갔다.

#### 설원 위에 피어난 아름다움

두 사람의 탁월한 실력 덕분에 백설기 위를 장식할 꽃들이 금세 완성되었다. 이제 꽃을 올릴 차례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꽃을 크기별로 올려주면 됩니다”라는 강사의 말에 두 사람은 다시 진지해졌다. “꽃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김은지 과장과 김나래 대리.

김은지 과장이 “난 반달 모양으로 꽃을 올릴래”라고 하자 김나래 대리도 “나는 빈티지 느낌으로 띄엄띄엄 올려봐요”라며 꽃을 올리기를 시작했다.



##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Review



#### 김은지 과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즐겁더라고요. 만든 떡케이크가 마음에 들지만 오늘 경험을 살려 다음에 도전한다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더욱 재밌고, 알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을 원동력으로 새해에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학 능력 기르기인데요. 좋아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때마다 ‘어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에 작년 한 해도 덕분에 즐거웠어. 올해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동료가 되자.



#### 김나래 대리

앙금으로 꽃을 만들고, 케이크 위에 올리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네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올해는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하던 백패킹과 캠핑을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은지 언니와 약속한 크로아티아 여름 캠핑을 시작으로 이 계획을 보다 많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로운 시간과 넉넉한 돈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오래도록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하.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며,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그 추억으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평소 생각과 취미가 비슷한 동료, 은지 언니와 함께했는데요. 편한 은지 언니와 함께 해 더욱 즐거웠습니다. 언니~ 지금처럼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자. 건강하고!^^

####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TIP



백설기는 미리 찌줍니다.



앙금에 식용 색소를 조금씩 넣어가며 조색합니다.



앙금 꽃을 만들어 줍니다.

\*깍지를 이용해 꽃을 만들면 됩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꽃 만들기를 연습한 후에 실제 백설기 위에 데코할 수 있는 꽃을 만들어 주세요.



백설기가 마르지 않도록 위에 하얀 앙금을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그 후 만들어진 꽃을 올려 장식합니다.

# 라라랜드 속 '삼남매 칸타빌레'

파주시 안전품질부  
안재희 차장 가족

'눈부신 파도'와 햇살을 품에 안고 음악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순간, 만면에 미소가 감돈다.  
그제야 온전히 들리고 보이고 만져졌던  
보석 같은 순간들을, 꼭 찬 행복에 정수리까지  
찌릿찌릿해졌던 그때의 우리를,  
안재희 차장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글 윤진아 사진 이승현



### 음악의 바다에 풍덩 빠져볼까?

겨우내 움츠렸던 자연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봄을 마중하러 간 길 끝에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평소와 다름없던 여행가방에 변화를 꾀해 아이들의 악기도 챙겨가자고 제안한 것은 안재희 차장의 여행 계획 중 제일 잘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림 같은 바닷가 펜션에 들어서자 경쾌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선율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넨다. 일상에 썬표가 필요할 때, 안재희 차장 가족은 주저 없이 악기를 연주한다고 했다. 실제로 음악은 이 가족의 DNA나 다름없다. 총각 시절 발라드를 즐겨듣던 아빠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던 엄마의 단골 데이트 코스도 뮤지컬 공연장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차례차례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삼남매도 자연스럽게 음악에 스며들었다.

“사춘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한적한 여행지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주고 싶었어요. 실은 아이들이 지역 아트센터에서 소규모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공연 무대에 올랐거든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의 악기를 연주하는 삼남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서툴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참 예뻐 보였어요.”

여진이의 플루트, 지후의 바이올린, 시현이의 첼로 선율이 한데 어우러져 어쩐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듯하다. 뉴진스의 'OMG'를 즐겨듣는 여진이, 마룬5의 'Sugar'가 요즘 최애곡이라는 지후, BTS 정국의 월드컵 주제곡 'Dreamers'를 좋아하는 시현이에게 음악은 일상이자 취미이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 수단이다. 키가 크는 만큼 감성도 쑥쑥 자란 아이들의 진지한 연주에 부모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먼 훗날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열다섯, 열세 살, 열두 살이었던 세 꼬마의 합주 선율에 슬며시 웃음이 나겠지?! 우리 모두가 그 시간과 공간에 한데 머물러 아름다운 선율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진, 지후, 시현아~  
너희에게 바라는 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것! 언제나 친구같이  
편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왼쪽부터 첫째 안여진 양, 막내 안시현 군, 둘째 안지후 군, 아내 공정미 씨, 안재희 차장

### 강화도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 동막해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백사장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펼쳐 보인다. 강화 남단에 펼쳐진 갯벌은 무려 1천8백만 평. 물이 빠지면 직선 4km 규모의 갯벌로 변한다. 썰물 땀 칠게, 가무락, 갯지렁이, 쌀무늬 고동 등등 여러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주소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1



#### 석모도

강화군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섬. 육지와 섬을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 석모대교가 개통돼 드나들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선덕여왕 4년에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 보문사를 비롯해 전 등사, 마니산, 상주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주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54-1

나의 반쪽 정미 씨!  
지혜로운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부족한 날 보듬어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 고맙고,  
사랑해♡

### 봄의 길목에서 찾아낸 자연의 선물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태양이 기운다. 내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자연의 선물이 문득문득 따뜻하게 느껴진다. 강화도는 지난해 아이들과 첫 바다낚시를 경험하게 해준 곳이다. 아빠를 따라 더 좋은 강태공이 되기 위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자연의 생태를 공부하고, 아직 채 자라지 않은 물고기를 놓아주며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된 아이들이 안재희 차장은 그저 기특할 따름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 안재희 차장은 특별한 가족행사를 마련해왔다.

“주말엔 가족운동회를 열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피구, 배드민턴, 하키 등등 다양한 스포츠를 온 가족이 원 없이 함께하는 날이죠. 여행가방 안에 배드민턴 라켓과 축구공도 들어있는 걸 보니, 이번 주말에도 거르지 않을 것 같네요.(웃음)”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가족 소통의 날'이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날이다. 대화가 늘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중차대한 변화도 시작된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부모가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여행 일정도 그렇게 완성됐다. 사이좋게 모여 앉아 '바닷가 펜션 음악회'를 실현하며 나는 웃음만큼 동력도 얻었다. 안재희 차장 가족의 유쾌한 향주는 한창 클라이맥스를 향해 진행 중이다.

### 섬 여행이 선사하는 아늑한 쉼표

산자락을 연잎처럼 두른 호젓한 오솔길은 또 다른 운치를 자랑한다. 나뭇가지마다 여린 잎들이 햇살을 한껏 받아들이며 새순을 돋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이 입춘이라더니, 날씨도 참 포근하고 온 풍경이 따뜻해 보이네요. 이렇게 새 소리 들으며 흠뻑 기회가 좀처럼 흔치 않은데, 짧은 산책만으로도 송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내 공정미 씨의 미소를 따라 안재희 차장의 입꼬리도 절로 올라간다. 사계절 가운데 봄에만 유독 '새'라는 수식어가 붙는 까닭은,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돌아온 이 계절이 그만큼 반갑기 때문일 것이다. 흥내를 풀내음을 온몸으로 들이마실 수 있는 텐트 안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뒹굴며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한적한 어촌 마을의 아름다움, 마당에서 바로 보이는 바다의 운치, 지저귀는 새 소리에 자꾸만 웃음이 난다. 오늘도 삼남매는 새롭고 재미난 것들을 쉬지 않고 찾아 나설 터이다. 드넓은 갯벌에 바닷물이 차오르면 낚시 채비를 하고 해변으로 나가야지! 우리를 마주보게 하는 바다, 함께여서 더 행복한 여행지에서 안재희 차장 가족은 '지금, 여기, 우리의 행복'을 누는 참이다. 🍀

# 나 홀로 읽는 도덕경



듣는 서점은 한남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따뜻·한남> 웹진에서 안성주 대리가 읽어주는 <나 홀로 읽는 도덕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처 해외사업1부 안성주 대리



Audio

Book

노자는 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물에 비유하였는데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사자성어로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 모양이 되고, 호수에 담기면 호수 모양이 됩니다. 높은 곳인 '위'에서 낮은 곳인 '아래'로 흐르고 바위가 있으면 비켜서 흐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 풀 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도 물과 같이 화합을 이루며 매사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녹음 해외사업1부 안성주 대리 사진 정우철

## 도덕경 제 8 장 - 물의 덕

노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선(善)은 착하다는 뜻보다는 탁월하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탁월한 것이 물과 같다'라고 한다면, 노자 사상에 자주 등장하는 물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겠죠.

철학을 연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 앞길을 막아도 다루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돌아서 갈 뿐이예요.

물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모두가 좋다고 하는 곳에는 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좋다고 하는 곳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 뻔하죠. 그래서 물은 사람들이 모두 안 가려고 싫다고 하는 곳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하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탁월함은 물과 같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물의 외적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겸손과 부드러움보다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에 있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이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는 그곳에 처하면서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Book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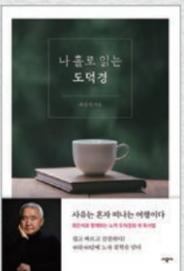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며 마치 한 편 한 편이 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누구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누구는 서두르지 않고 흘러가는 여유를, 누구는 자연스럽게 틈새를 파고 드는 유연함을, 또 누구는 더러운 것을 정화 시켜주는 포용의 자세를 배웁니다.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쉽게 생각할 때 '물로 본다'라는 표현이 생겼을 정도로, 물처럼 살면 쉽게 보는 사람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항상 평온할 듯 보이지만, 때론 강력하고 맹렬해서 가로막던 모든 것을 잠재워버리기도 한다는 특성을 모르다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품기 위해 경계가 없는 물처럼, 부드러움과 약함이 주는 삶의 지혜로 살아봐야겠습니다. 🍷



## 도덕경 제 7 장 - 바른 말은 정반대인 것처럼 들린다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치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까닭에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온갖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를 일러 사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좋지 못한 일을 감수하는 이를 일러 천하의 왕이라 하였으니, 바른 말은 마치 거꾸로 하는 것처럼 들린다.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 화성지사 운영부

# 편리한 일상을 지탱하는 상생의 힘

흔히 집을 '삶의 그릇'이라고 한다. 우리가 영위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담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그릇의 가장 기본 재료는 따뜻하고 편리한 환경이 되어야 할 터.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화성지사 운영부는 600여 세대의 건강한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상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글 김주희 사진 정우철



세대 수  
**8**개 동  
**663**세대



입주 연도  
**2011**년



열 사용량 2022년 기준  
**2,840** Gcal/h



열교환기 용량  
**3,520** Mcal/h  
난방 3기, 급탕 6기



**입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주거 공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자리한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는 2011년 6월 입주 시작했으며 초기 입주자 중 50% 이상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663세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한다. 박선영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입주민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단지 안이라는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차제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입주민의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입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 강사가 단지 내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심리 진단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사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관리사무소 옆에 입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마련해 소통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는 지열, ESS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사업에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중점

적으로 추진해왔다. 친환경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에 일조하며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최소화입니다. 입주민들이 아주 작은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및 설비 노후화에 대응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역난방 설비도 그중 하나죠. 입주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협력해온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운영부와 '안정적인 열 공급'이라는 미션을 달성하는 중입니다."

**"시설물을 관리할 때면 고장이나 부조화 같은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화성지사 운영부는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험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늘 든든합니다."**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박선영 관리사무소장**



왼쪽부터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남효준 과장, 화성지사 운영부 김성대 팀장,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 박선영 관리사무소장, 화성지사 운영부 심주현 대리, 윤장원 대리



**"현장의 사소한 것 하나 면밀히 살피는 관리사무소의 노력이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 공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가족 같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지사 운영부 김성대 팀장**

**예방 최우선, 민원 최소화를 위한 연대**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와 화성지사 운영부는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데에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시설관리 본질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나 불안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화성지사 운영부 김성대 팀장은 예방의 첫걸음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이상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설비들을 둘러보는 게 쉽지 않은데, 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해 설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는 설비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2016년, 2018년, 2020년 지역난방 우수열사용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성지사 운영부 윤장원 대리는 "시설관리 업무는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꾸준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며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화성지사 운영부는 고객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난방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지를 직접 찾아 난방설비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 그리고 지역난방을 처음 경험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겨울철 난방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움을 요청하자 한달음에 달려와 입주민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기도 했다. 단지 내 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남효준 과장은 화성지사의 빠른 지원을 매 순간 체감한다고 전했다.

"차압유량조절밸브에서 심한 변동이 감지된 적이 있어요. 순간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데다 문제가 지속되면 설비에 무리가 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자 화성지사 직원들이 기계실을 찾아 원인을 찾고 해결한 덕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요."

협업은 서로 같은 크기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다. 화성지사 운영부 심주현 대리는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협조적으로 임해주시니 자연스럽게 끈끈한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용인 서천마을 2단지 아파트와 화성지사 운영부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안정적 지역난방 열 공급 실천을 약속했다. 🍎

# KDHC NEWS

## 01

### 에너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지난 2월 9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 1차 대책에 이은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최대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간 중 실제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한남은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고객설비 효율 개선,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방안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02

### 설 연휴 대비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전 경영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관리 대응 태세, 작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지난 1월 13일 한남 강남지사를 점검한 정용기 사장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사고(思考)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남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현장 특별 안전점검은 설 연휴를 맞이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한남은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역난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JAN+FEB 2023

## 03

### 내부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정용기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투명경영'을 4대 경영방침 중 하나로 수립했으며, 12월 19일에는 간부진 대상 내부통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황찬익 상임감사위원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에서 정용기 사장과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은 "우리는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남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실행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올해 반기별 전사 내부통제 적정성 진단과 함께, 자율적인 내부통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 노력 결과, 한남은 2022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공기업 최초 'A+' 및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등급 획득과 함께, 2022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3년 연속 A등급 달성 및 2022년 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 최고감사인으로 선정되는 등 한남 내부통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정용기 사장은 "앞으로도 한남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04

### 자회사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경영' 선도



한남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등 국민 안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사장 김진홍)와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ilter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난방플러스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지역난방플러스는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정립',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안전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등을 통해 국제표준규격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 3월 제정한 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와 각종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제도이다. 한남은 앞으로도 자회사와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 2022년 11+12월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 심\*경 님

'순간의 기록' 코너 중에 "한 해의 끝자락, 지난 1월에 새로운 시작과 함께 품었던 열정이 식지는 않았나요? 다시 삶의 온도를 한껏 올려 오늘도 내일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보세요." 이 멘트가 모두에게 크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2023년은 조금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

### 박\*화 님

'여기서 행복'에 나온 최도현 차장 가족이 인상 깊어요. 옛 추억 가득한 한옥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는 것을 보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이런 훈훈한 글을 보면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봉진'이의 꿈을 응원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김\*훈 님

'가족의 식탁'을 잘 봤어요. 평소 '참스테이크라는 요리는 어떻게 맛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매일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는데 사보에 나와서 무척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딱 맞추었는지 너무 신기했고 <따뜻:한남> '가족의 식탁'에서 알려준 레시피를 연말에 도전해 봤습니다.

### 김\*경 님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 2023년에도 독자와 함께하는 <따뜻:한남> 이벤트

event ①

### 생각 보태기

'요즘 사랑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1만 원

### 톡톡 앙케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②

###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웹진 페이지마다 숨어있는 '토끼탈 쓴 따소미'를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③

### <따뜻:한남>보고 의견 남기기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남>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남>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을 검색해 주세요.

## 2023년에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한남 SNS 속으로~!



2023년에도 한남 SNS는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독자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골라서 보세요~! 그중 핵심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효율적인 지역난방 사용방법



YouTube  
www.youtube.com/kdhcmedia



요즘같이 날씨가 추우니 난방비 걱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끝까 말까 고민되는 난방 기기.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일까요? 우리 집의 지역난방 설비와 사용량만 알아도 백전 백승!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튜브 '따라가보는 클라쓰'에서 알려주는 효율적인 지역난방 사용방법을 확인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지역난방 사용량 이렇게 절약하자!



NAVER blog  
blog.naver.com/kdhc2017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슬기로운 난방 생활을 위한 난방 사용량 절약 팁을 알려드립니다. 온도조절기를 활용해서 난방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남 블로그에서 그 방법 알아가세요~!

### 뜨끈한 바닥난방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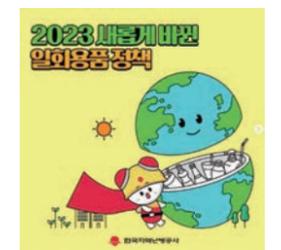


facebook  
www.facebook.com/FKDHC



겨울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끈하게 데워주는 바닥난방! 이런 바닥난방에는 아주 효율적인 과학원리가 숨어있는데요. 온도의 구조, 온수난방, 전기난방부터 바닥난방 꿀팁까지! 한남 페이스북에서 날날이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두루두루 좋은 정보 확인해 보세요.

### 2023 새롭게 바뀐 일회용품 정책



Instagram  
www.instagram.com/kdhc\_on



지난 10년간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일회용품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환경 지킴이 한남이 변화된 일회용품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카페 및 식당, 편의점 및 중소형 마트와 제과점 등!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